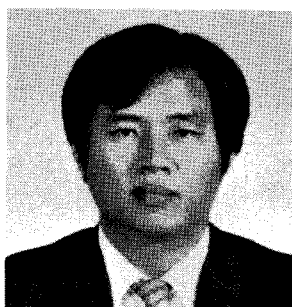


日本 研修를 다녀와서



金 鎬 喆

〈忠北 증평공고 發明班 指導教師〉

늘상 꿈꾸어 왔었으면서도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日本研修를 가게 되었다.

가마득한 옛날이지만 그래도 學窓時節修學旅行을 간다고 할 때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설치기가 일쑤였다.

처음 日本 研修란 消息을 들었을 때는 學窓時節의 설레임 그대로였다. 日本研修라는 幸運의 機會가 오게 된 것은 '88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 내가 指導해왔던 學生이 金賞을 受賞하게 된 結果로 인한 特許廳의 配慮에서였다.

特許廳의 意圖는 指導教師들을 격려해줌으로써 士氣를 振作시켜 주기 위함인 것이었고, 아울러 入賞 指導教師들에게 先進國의 發明風土와 그네들의 文化 文明을 直接 접하게 함으로써 學生指導에 더욱 效果를 꾀하자는 데 있는 것이었다.

우리 研修團 一行은 日本으로 出發하기 며칠 전인 89년 11월 1일에 特許廳會議室에서 모임을 갖고, 各者의 人事紹介 및 研修時의 注意事項에 대한 簡略한 教育을 받았다.

研修團員은 團長인 柳明鉉 指導課長과 全國初中高校의 發明班 創設 보급에 功이 많은 各市道 教育委員會의 獎學士 5분과 '88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 入賞토록 指導한 教師 8名 等 모두 14명으로 構成되었다.

11월 6일

午前 8時 30分, 우리 一行은 김포 國際空港 待合室에서 一次 人원파악을 한 다음 10시 30분 東京發 KAL 704機에 탑승했다.

난생 처음 飛行機에 올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氣分이란 말로서는 이루 形容할 수 없는 壯觀이었다. 마냥 파아란 바다가 펼쳐지는가 하면 흰구름은 마치 눈덩이를 뭉쳐 놓은 것과도 흡사했다.

어느 정도 時間이 지나 寫眞에서만 보아왔던, 눈이 하얗게 뒤덮인 후지산의 頂上을 내려다보며 日本 領土 內에 들어섰음을 이내 直感할 수 있었다.

機內에서 내려다보는 日本땅은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位置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푸르른 森林이 울창했고, 여기저기 띄엄띄

엄 떨어져 있는 日本 農村住宅을 마치 성냥갑을 벌여 놓은 듯했다. 그리고 農村道路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슷했지만 耕地整理가 잘 된 논과 밭 등은 너무도 人工 냄새가 배어 있는 듯 참으로 機械的이란 생각이 들은 어쩔 수 없었다.

우리一行은 正確히 2時間만에 東京에 있는 나라따 國際空港에 到着하였다. 空港은 생각보다 매우 넓었으며, 滑走路 위엔 여기저기 各國의 많은 飛行機가 마치 自己 나라를 象徵이라도 하듯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空港 出口를 나오면서 日語를 잘 몰라 앞서 람이 하는 대로 따르면서도 咫尺에 둔 이웃이지만 言語障壁을 곧바로 實感할 수 있었다. 出口에는 이미 우리 일행을 반기는 案内者가 나와 있었다.

故國을 떠난 지 數時間만에 밝게 되는 異國 땅이란 생각에 미치자 참으로 微妙한 感情이 앞섬을 불금케 했다.

우리 一行을 태운 버스가 高速道路를 따라 東京市內로 들게 되면서는 길 左右의 街路樹가 異國의임을 實感할 수 있었다.

案内者는 우리 一行이 알고 지켜야 할 事項을 낱말이 細細하게 說明해 주었다.

東京市內에는 國內線인 하네다空港과 國際線인 나라따空港이 있다고 했다. 그중 하네다공항은 日本 國內線만이 使用하고 있었는데 例外로 自由中國만은 認定해 준다고 했다. 그것은 自由중국을 國家로 認定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國家가 없는 설움, 우리는 지금 南北分斷의 狀況이 처해있긴 하지만 얼마나 幸福함을 만끽했던가? 日帝治下時의 우리 先祖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學生들에게 國家의 重要性을 더욱 일깨워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다.

高速道路 兩便을 疾走하고 있는 車輛들은 大部分 小型이었다. 經濟大國이라고 自負하는 日本땅에 소형택시와 소형봉고차, 소형트럭들이 많다는 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理解가 잘 가지 않았으나 案内者는 日本 國家는 富強하지만 國民은 가난하다고 말했다. 비로서

理解가 가는 듯했다. 國民各者가 收入에 비해 物價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勤勉節約 生活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半信半疑하는 동안 車는 東京市內로 접어들고 있었다. 곳곳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빌딩과 工場, 아파트, 東京 수도고속도로를 보면서 역시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자못 들었다. 이런 工事を 위해 얼마나 많은 時間과 建築費를 所要했으며, 그 技術水準은 어느 程度였을까가 궁금했다.

午後도 늦은 時刻에 첫 見學豫定地인 東京 電力館을 觀覽하게 되었다. 電力館의 管理者가 반가이 우리 一行을 맞이하며 브리핑실로 案内했고 전력관에 관해 자세히 說明해 주었다. 日本은 地方自治制로 인하여 모든 것을 各地方別로 計劃實行한다고 하며 電氣도 東京市內에서 必要한 量을 自體 生産하여 消費한다고 했다.

各層마다 擔當分野 案内者의 說明이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印象에 남는 것은 電力館의 施設보다도 함박 웃음을 머금은 채 展示品을 說明해 주는 日本 사람들의 親切함 그것이었다. 우리 國民들에게도 이런 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일본사람들은 그것을 實踐에 옮겨 경제대국의 발판을 삼았으리라.

各層마다 여러 가지 展示品들이 잘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東京兒童學生發明品展示會 등에서 上位 入賞한 作品들을 3個月 單位로 展示한다고 했다. 그런데 案内者의 말대로 모든 作品製作은 學生들 스스로가 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잘 다듬어져 있다거나 洗練되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디어만은 참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1월 7일

午前 일찍이 日本電子商街團地인 아끼하바라에 들렀다. 우리나라 서울의 세운상가와 비슷한 곳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그 規模는 참으로 대단했다. 약 1時間程度를 各者가 나름대로 見學을 했다. 수많은 外國人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으며, 아주 작고 微微한 物件이나 附屬品

들까지도 定價票가 붙어 있었다. 完製品은 價格이 싼데 비해 부속품 가격은 매우 비쌌다. 이것은 製品生産이 大部分 自動化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 같았다. 또한 이들 商品중에 尖端을 걷는 新製品은 價格이 비싸다지만 점차 해가 바뀔 수록 大量生産이 可能한 탓으로 新製品 當時보다 값이 상당히 저렴해진다고 한다.

다음에 들른 곳은 도시바과학관이다. 그곳에 이르는 途中 世界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고 일컬리는 긴자 4가를 지나게 되었다. 그야말로 잘 區劃된 道路와 잘 整頓된 店舖들이 수많은 通行者들의 視線을 끌 만한 곳이었다.

도시바과학관의 入口에는 象徴塔과 庭園의 樹木들이 훌륭한 調和를 이루어 보기가 좋았다. 科學館 管理責任者의 환영 인사에 이어 곧바로 全般的인 案内가 뒤따랐다. 물론 자세한 것은 파트별로 담당아가씨들이 說明 해주었다. 도시바의 創立歷史는 약 110年 가량 된다고 하는데 會社 誕生의 動機 및 그 發明品, 遺物들이 展示室에 一目瞭然하게 잘 整頓 展示되어 있었다.

이 커다란 會社가 建立될 當時에는 저런 것도 發明品으로 볼 수 있을까 할 程度의 微微한 것들이지만 지금부터 110여년 前 當時, 發明이란 用語조차 口に 올리는 사람이 없는 狀況에서 일찍이 發明에 대한 關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한 發明精神이 오늘날엔 온 世界에서도 認定받는 도시바라는 巨大한 企業體로 成長하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다시금 發明의 偉大함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微力하나마 發明班을 組織하여 指導하게 된 것에 自負가 있었다. 이 곳 展示館에도 이 會社에서 發明된 各種 發明品들이 무수히 진열 展示되고 있었다. 우리와 같이 이 科學館을 찾는 訪問客數는 年間 130만여명 程度로 그 중 學生이 70만여명 其他 内外國人이 60만여명 程度라 한다. 이 會社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自己浮上列車의 모노레일 기차모형 運行實驗을

못보고 나온 것이 못내 아쉬웠다. 원래 이 模型들은 觀望者를 위해 하루에 몇번 程度 運行實驗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우리 一行은 그 실험 運行時間과 타이밍이 맞질 않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11월 8일

日本 科學技術館을 가는 도중 發明會館을 들르게 되어 發明에 관한 책을 몇권 購入했다. 小規模이지만 科學技術館內에서는 각 電子會社들의 發明品展示會가 열리고 있었다. 展示室 入口에서는 發明에 관한 各種 書籍들도 販賣하고 있었는데, 그 種類가 아주 多樣했다. 發明品을 出品한 會社職員들로부터 直接 說明을 들으며 觀望을 했다. 경제대국 日本이란 나라는 發明家들을 위한 團體인 日本 發明協會를 最頂點으로 하여 各種 後援團體들이 수 없이 많다는데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러한 底力이 아마도 日本을 오늘날 世界 發明分野의 第一國이 되게끔 했을 것이란 생각은 너무도 自명한 이치일 것이다.

午後, 우리 一行은 時速 210km로 달린다는 신간선 열차를 타고 京都로 가게 되었다. 참으로 살 같이 지나는 鐵路週邊의 風景은 그 아름다움에 異國다운 情趣가 물씬 풍겼다. 잘 整頓된 都市, 깨끗한 시냇물, 傳統的인 日式住宅等 모두가 나에게서는 놀라운 일이었으나 곳곳의 수많은 工場굴뚝에선 연기가 하늘을 검게 그을리고 있었다.

列車안의 손님들은 거의가 大部分 손에 책을 들고 있었는데, 과연 日本이란 경제대국이 成立되기까지의 日本國民들의 精神姿勢를 보는 듯했다. 킁킁할 때 우리는 발 닿는 곳마다 절이 있다는 古蹟의 都市, 京都에 이르러 하룻밤을 留宿하게 되었다.

11월 9일

여러 곳의 寺刹을 觀覽한 중 금각사라는 절은 참으로 印象的이었다. 이름 그대로 建物 上部를 金으로 鍍金한 것이 特徵이었다. 이 절은 建築主였던 어느 이름모를 將軍이 모든 사람에게서 崇拜받을 目的으로 지었다 한다. 하긴 日本 寺刹築造의 目的은 大部分이 옛날

그 地方出身의 有力한 將軍이 建築主가 되어 다른 사람들로 부터 推仰받기 위해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한다. 또 절 주변을 연못으로 만들어 그 景觀이 참으로 아름다웠고 이 절 또한 日本 寺刹 대부분처럼 佛像이 없다는 게 特色이었다. 금각사 觀覽 後 다른 寺刹 몇 군데를 더 들른 다음 日本 最高의 商業都市이며 우리 僑胞 약 70만여명이 살고 있다는 오오사카로 向하였다. 東京에 比해 都市의 風景이 매우 輝煌찬란하였다.

11월 10일

日本에서의 모든 研修日程을 마치고 歸國하는 날이다. 午前 일찍 松下電氣 發明歷史館을 見學했다. 오늘날 내소날 과나소닉會社가 있기까지의 歷史를 이곳 管理者가 자세하게 說明하여 주었다. 가장 感銘깊었던 것은 創業者 自信이 職工生活을 하다가 기존 전기소켓트의 不便한 점을 찾아 改良發明한 것이 契機가 되어 오늘날의 松下電氣 그룹을 創設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이 會社의 發明特許의 숫자는 國內特許 48,000여건, 實用新案 63,000여건, 外國特許 18,000여건으로 都合 10만여건이 넘는다 하니 그들의 發明精神이 어떤 것인지 가히 짐작할 만했다.

展示物은 약 2,000여 점으로 草創期 遺物들이 잘 維持保管되어 있었다. 이 會社는 全世界 37個國에 170여개의 子會社가 있다고 한다. 日本 마지막 觀覽地인 松下電氣 技術館을 찾게 되었다. 이곳에는 各種 最新電子機械가 있었으며, 前面 廣場에는 世界 有名發明家들의 胸像이 圓型을 이룬 채 있으며, 中央部에는 에디슨 銅像이 높이 우뚝하게 서 있었다. 이 중 日本 發明家の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發明家들은 찾을 수 없었다.

日本の 見學을 마치고 오오사카空港으로 돌아오는 車內에서 우리 一行은 各者가 보고 느낀 대로의 그 所感을 發表할 機會가 있었는데 모두가 異口同聲으로 發明과 直結된 日本이란 巨大한 경제대국 建設談이었다.

日本과 우리나라는 地理的인 位置로 보아 가장 隣接한 나라라지만 力學的인 면에서는 가장 멀리 느껴지던 나라였다. 日本을 見學하는 동안, 그들이 發明과 直結된 경제발전 및 節約하는 生活을 보면서 우리도 배울 바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機會를 마련해 준 特許廳 및 그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

案

本會 發明振興事業

內

本會는 發明振興事業을 積極 推進하여 登錄된 權利가 企業化 됨으로써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하고자 다음과 같은 事業을 展開하고 있어오니 많은 參與바랍니다.

- ◎ 發明獎勵館의 發明品無料展示 및 企業化 斡旋
- ◎ 優秀發明者, 發明有功者, 優秀特許管理企業 選定表彰
- ◎ 海外 出願에 對한 補助金 支援
 - 創業資金支援 推薦(45歲 未滿)
- ◎ 發明의 保護 및 紛爭 仲裁
- ◎ 企業과 發明家 結緣(申請接受)
 -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 公告, 登錄番號 및 日字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 바랍니다.